

NextRise, 2019 Seoul

별첨

환영사

2019. 7. 23. (화) 14:30

금융위원장
최종구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박람회이자, 혁신성장 Fair인 'NextRise 2019, Seoul'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넥스트라이즈가 성공적으로 시작하기까지 여러모로 지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민병두 정무위원장님, 한국산업은행 이동걸 회장님,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님, 벤처기업협회 안건준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혁신성장의 주역인 스타트업 관계자분들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참여하신 기업인, VC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오랜기간 애써주신 산업은행과 무역협회를 비롯한 주최기관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II. 국내외 창업생태계 평가

오늘날 세계경제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산업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춘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스타트업에서 시작하여 기업가치가 10억 달러(1조원)를 넘어서는 유니콘 기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신규 글로벌 유니콘 기업수(개) : ('16) 29 → ('17) 66 → ('18) 123 → ('19.6) 57
[CB Insights]

스타트업이 특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나라들은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 그리고 기존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도전적 스타트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춤춤하고 탄탄한 창업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 유니콘기업(개) : 1위 미국(178), 2위 중국(94), 3위 영국(19), 4위 인도(18), 5위 한국·독일(9)

※ 「2018년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 : 1위 실리콘밸리, 2위 뉴욕, 3위 런던. 20위권에 아시아권은 4개 도시(베이징, 상하이, 싱가포르, 방갈로르)가 랭크

국내에서도 유니콘 기업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창업생태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 국내 유니콘 기업수(개): ('16말) 3 → ('17말) 4 → ('18말) 8 → ('19.6월) 9 [CB Insights]

※ 美 스타트업 정보 분석기관인 Startup Genome이 발표한 「2018년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서울은 20위권 바깥 순위

Ⅲ.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혁신창업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창업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생태계 조성의 관점에서 스타트업이 쉽게 출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① 먼저 금융 분야에서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활발하게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의 출현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난 4.1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였습니다.

※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 운영현황

: 4.1일 도입 이후,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으며, 금년 중 50건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 사례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편의성 제고]

: (기존)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시 마다 상품설명·확인 등의 절차 이행
→ (개선) 최초 보험가입시만 설명을 듣고, On/Off 방식으로 가입·해지 가능

②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인프라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 광화문 광장 2배 크기의 혁신창업공간인 ‘FRONT 1’을 조성하여 민간 액셀러레이터, VC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에게 금융, 컨설팅,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FRONT 1」의 의미

: 혁신의 최전선(Front)에서, 대한민국 스타트업이 경계(Frontier)를 확장하고, 글로벌 최고수준(No.1)으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혁신성장 1번지」

※ 향후 추진일정 : (19.6월) 리모델링 착공 → (19.12월) 부분개소 → (20.5월) 전체개소

③ 성장단계에 진입한 기업의 본격적인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중심의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2020년까지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결성하고 이후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성장지원펀드 운영현황

: '18년 2.94조원 규모의 1차년도 펀드조성에 이어, '19년 2.43조원 규모의 펀드조성 진행 중

※ 향후 성장지원펀드 조성계획

: '20년까지 8조원 규모의 펀드조성을 완료하고, '22년까지 모태펀드와 함께 7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 추가조성 추진

- 또한 벤처투자플랫폼인 산업은행 'NextRound'을 통해 스타트업·벤처기업과 투자자간 연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KDB 'NextRound' 운영실적

: '16.8월 출범 이후, 986개 기업의 IR을 실시하여 173개 기업 9,148억원의 투자유치 지원('19.7.18일 기준)

④ 창업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업인들이 시행착오를 발판삼아 재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연대보증을 폐지*하였습니다.
기업인들이 실패의 경험을 축적하고 성공의 자산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18.4월 연대보증 폐지 이후, 1년간('18.4~'19.3) 연대보증 없는 보증을 10.5조원 공급하고 전년 동기대비 중소기업 보증공급규모도 확대(66.5조원→67.3조원)

IV. 「NextRise 2019, Seoul」의 의의

그간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해외에 비해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의 협업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은 기술, 유통, 해외진출 등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기존 기업은 새로운 성장과 혁신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간 협업 성공사례(Ikea-스타트업 Ori)

: Ori는 '15년 창업한 로봇 스타트업으로, Ikea에서 Ori와 협업하여 자리를 옮기고 접는 로봇가구 브랜드 로그난(ROGNAN) 론칭 예정('20년)

우리 창업생태계에서도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의 만남, 그리고 협업을 통한 개방형 혁신을 촉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오늘 출범하는 「NextRise」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NextRise」에는 국내 150개, 해외 50개 등 총 200여개 스타트업들과 국내 대표기업 19개사, 글로벌 기업 8개사, 그리고 20개 국내외 VC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등은 성장의 길을, 기존 기업들은 혁신의 길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벤처생태계의 리더들이 대거 참여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과 변화'라는 주제로 다양한 Keynote Speech를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국내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정착해 온 산업은행 「NextRound」에 이어, 「NextRise」는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 스타트업의 다음 단계(Next)로의 성장에 필요한 투자유치(Round)를 지원하는 플랫폼

* 스타트업의 다양한 사업협력을 통해 다음 단계(Next)로의 도약(Rise)을 지원하는 플랫폼

Ⅲ. 마무리 말씀

“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

아이 한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 사람이 나서야 한다는 외국의 속담입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스타트업을 이끌고 뒷받침하는 창업생태계도 이와 같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출범하는 산업은행 넥스트라이즈는 지금까지 우리 창업생태계에 부족했던 부분을 메꾸는 퍼즐의 한 조각이 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혁신성장 Fair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기업의 개방형 혁신문화 확산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스타트업, 기업, VC 등 오늘 참가자분들이 1:1 미팅, 세미나, 기조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과 성장을 위한 혜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